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감사와 결실의 달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1·12 월

1985년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눅6:21)

현대인들은 웃고 즐기는 것을 최대의 행복으로 알고 있다. 하루를 살든 백년을 살든 웃고 즐기는 것은 그만큼 복되게 살았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웃음과 쾌락은 현대인의 생활철학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동산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즐겁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는 것이다. 개인도 사회도 명랑해야 한다. 우울하면 그만큼 생활을 그늘지게 한다. 남을 즐겁게 하는 것이 선이요, 남을 슬프게 하는 것은 최악이라고 까지 한다. 그래서 명랑한 노래, 즐거운 춤, 신나는 유행이 거리를 휩쓸고 있다. 사람이 즐겁게 사는 것은 탓할 바도 아니요, 죄될 것도 없다.

그러나 인생이란 그저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며 즐겁기만 해서도 안 된다. 일년 사시 좋은 날씨에 햇볕만 쬐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땅은 메말라 사막으로 변할 것이다.

바람불고 비오는 날이 있어야 햇볕나는 날의 고마움도 알게 된다.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듯, 인생살이에든 때로는 슬픔과 애통은 필요한 것이다. 슬픔과 눈물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구실을 하게 된다. 눈물과 비통은 사람으로 하여금 반성을 촉구하고, 보다 나은 단계로 비약할 수 있는 용기를 불러 일으킨다. 올바른 슬픔을 느낄 줄 알 때에 바른 기쁨을 얻게 된다.

오늘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이란 거의 전부가 감각적이다. 먹고 마시고, 입과 살과 눈에 쾌락을 마음껏 누리자는 것이다. 욕망대로 살아 보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지한 짐승과 무엇이 다르랴?

사람에겐 동물적인 관능을 초월한 영적 갈망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물불듯이 쏟아 부어도 인간은 영원히 불만족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사람이 미와 관능의 세계에서 도덕과 신앙의 세계로 승화될 때에야 인간 본연의 자세를 찾게 된다. 무턱대고 즐겁게만 흥청댈 것이 아니라 웃것을 여미고 모든 피상적 연락과 담을 쌓고 인생을 관조해야 한다.

애통 그 자체를 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애통의 골짜기를 통해서만 인생의 환로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진도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전7:4)고 한 말은 인생의 근본이 비애의 운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한 말이다.

보통 생각하기로는 낮에는 밝기 때문에 모든 사물이 다 잘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인즉 낮에도 멀리 있는 것은 볼 수가 없다. 해가 지고 어두워진 후에야 우주 끝에 있는 별이 보인다는 것을 새삼 깨달아야 한다. 눈물은 영계를 들여다 보는 망원경이고, 애통은 겹겹이 싸인 외식을 걷어 제치고 나 자신을 들여다 보는 현미경이다.

총현교회 성도들은 한해를 영원한 과거로 보내는 시점에서 「이제 우는 자」가 되어 지난날의 허물을 회개하여 용서받으므로 천국을 더욱 명확히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새해를 웃으면서 맞기를 바란다.

五 大 目 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월간 **충현**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13권 제 7 호
통권 제131호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임 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11·12월호

차 례

권 두 언.....이제 우는 자.....주 간.. 2
이달의말씀.....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천국일꾼 김창인.. 4

특별기고

- ① 구국과 절제운동 임종만.. 6
② 미국 개혁과 교회의 역사 존·이·힘스트라.. 8

충현논단

- 성경과 독서 김장근.. 12
단상/이산가족 상호 방문을 보고 조선근.. 16
단절의 40년 박춘봉.. 23
//방문보고// 내가 본 평양과 북한 선교 박상준.. 20

충현칼럼

- 1회초 노아웃 부터 박승준.. 15
◎가정탐방◎ 강명순 안수집사택 편집실.. 18
독자투고/중공선교 안노수.. 24

- 교우동정.....편집실.. 32
독자의 편지편집실.. 34
교회 뉴스편집실.. 27
교회행사 안내편집실.. 35
편집후기.....편집실.. 35

표지 사진 설명



주수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은 농부만의 기쁨만은 아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며 감사해야 할 조건과 간증이기 때문이다. 금년도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수감사절 잔치를 유치부 꼬마들과 함께 가져 보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천국일군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밝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심상 16:12)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공의롭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일군이다' 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충현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역자님들과 여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님, 각부 성가대원, 모든 부서에서 일하는 여러 지회의 임원, 어린이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천국의 일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현교회는 교회 설립 10주년이 되는해(1963)인 9월 첫 주일에 '천국일군을 키웁시다' 라는 표어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훌륭한목사님도 선교사님도 많이 키우자는 말이기도 하지만 본래의 뜻은 학생은 학교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일군이 되고, 군인은 군대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군인이 되고, 회사원은 회사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일군이 되고, 기술자는 그가 일하는 공장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기술자가 되고, 정치인은 나라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일군이 되고, 주부는 주부로서 아들 딸은 아들 딸로서 천국의 일군이 되어 가정 천국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는 경건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직장에 가서는 천국의 파괴자가 되고 학교에 가서는 강패가 되는 그런 일감은 꿈에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학생은 학교에 가서 천국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꽃은 있는 곳에서 향기를 뿜습니다. 응접실에 놓아도 향기를 뿜고, 공중변소에 갖다 놓아도 향기를 뿜는 것처럼, 신자는 어디에 가든지 그 앉은 자리, 선 자리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일군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런 뜻에서 천국일군을

키우자는 간판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천국일군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불붙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나니,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불붙어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나의 생명을 지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할 마음이 불붙어야 합니다. 죄인으로 지옥의 멸망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나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흘려 죽게 하사 구원하여 하늘나라로 이사를 시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불붙어야 합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하고, 향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할 결심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오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일군이로다' 하시며 기뻐하십니다.

만일 돈이나 권세가 있다고 뽐내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모리배들이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잔꾀에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모리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하실 것입니다.

2.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악한 짐승이 양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살진 꼴로 먹인 다음에는 그늘진 바위 옆으로 양을 인도하여 편히 쉬게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양 한 마리라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내가 맡은 책임에 정성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을 '내가 내 마음에 드는구나' 하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3. 외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군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결코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다윗은 물매와 돌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칼 쓰는 법을 연습해 가지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다면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칼도 써보지 못 하고, 자신도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을 마치지 못 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몸에 병이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정성을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충현교회의 성도들이여, 성가대는 거기서 정성을 다 합시다.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정성만 쏟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다윗의 물매돌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 주시므로 다윗이 이겼습니다. 김 창인 이나 충현교회의 여러분이 잘 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시는 날이 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써주십니까? 외식이 없이 내 모습 그대로를 정성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대로 써주십니다.

4. 책임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다윗은 나라를 위태로운 자리에서 건져낸 구국공신으로 사울 왕의 둘째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뭐야? 참아도 한도가 있어. 내가 열 번이나 참았던 말이야' 하고 한 번 칼을 뽑아들면 사울 왕의 목을 떨어뜨리는 것은 파리목을 자르는 것보다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해도 아들은 효도해야 하고, 임금님은 신하를 죽이려고 해도 신하는 충성해야 한다.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나는 내 책임에 충성하리라' 다윗은 감정도 없는 바보와 같이 쫓겨만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쫓겨다니던 다윗이 서른 살 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다윗



을 죽이지 못해 애를 쓰던 사울 왕은 아들 3형제와 함께 길보아 산에서 원수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의인을 해하려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억울하게 쫓겨가면서도 자기의 책임에 충실한 자는 하나님이 들어 써주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5.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했다가 선한일에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짓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설계는 물론 그 안에서 쓸 그릇들까지도 모두 지혜롭게 설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기울여 성전지를 자재까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작성한 설계도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후손들의 영원한 번영을 위하여 성전을 지읍시다.

북한 땅에도 선교사를 보내는 날이오고 백두산 소나무를 찍어 예배당짓는 날이 오도록 하루에 두 번 이상 기도해 봅시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보고서를 바치기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남은 때에 전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지면 흙 한 줌 밖에 남지 않을 내 몸을 위해서 생을 허비하지 말고, 다윗처럼 선한 일에 땀과 눈물을 쏟고 허리띠를 조이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후세의 내 백성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구국과 절제운동

임 종 만

(목사·북서울교회시무)

빛 지고 큰 소리 치는 나라

현재 우리 나라는 세계 제 3위의 외채국으로서 514억불의 빚을 지고 있다. (85년 9월말 현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6조 2천 6백억원이란 엄청난 액수다.

빛이 적을 때는 빛진 죄인으로 얼굴을 못 들다가도 갚을 엄두를 못낼 만큼 무거운 빚을 지면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인간 심리이다.

850억불이란 외채를 쓰고 있는 「멕시코」가 돈을 빌어 놓고는 “부도를 낸들 땅덩어리야 가져 가겠는가!”고 큰 소리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대 지진때 백년이 넘는 건물들은 괜찮았지만 근래 외채로 세운 공공건물들은 대부분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는 관리들과 업자들이 제각기 돈을 때 먹고는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지진이 없어도 와우아파트가 폭삭 내려 앉았던 일이 있었으니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다.

크리스찬과 사회참여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와 사회 단체에서 외채를 염려하여 절약 운동이 일어나는 현상은 다행한 일이다. 어느 모임에서는 다섯 가지 결의문이 거론되었는데

- ①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는 한달 생활비를 외채 갚는데 낼 것
- ② 헌혈하기
- ③ 선교목적외에 해외 여행 삼가하기
- ④ 국산품 애용하기
- ⑤ 호텔이나 사치업소에서 회의나 행사를 갖지 말것 등등이다.

우리는 나라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된다. 옛 선지자들과 사도들, 앞서간 성도들은 모두 애국자들이었다. 3·1독립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은 기독교 지도자들이었고, 조 만식 장로는 국산품 애용 운동을 일으킨 어른이며, 안 창호 선생은 흥사단을 조직하여 경제 자립을 외친 선각자였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면 사회 국가 문제에 적극 참여해야겠다.

외채 갚는 비결

성경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도 지지 말라고 했고(롬13:8)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왕하4:1~7)

그러면 외채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1. 국민 모두가 절약 저축하면 된다.

불신자들이 한국 교회의 1년 예산이 4천억이니 어느 비생산적이지요 낭비가 아나냐고 따지곤 한다.

그러나, 그들이 주초로 소비하는 돈은 1년에 거의 10배가 되는 약 4조 원이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이 술 담배를 11년만 안하면 빚 갚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 초대 교회는 철두철미 금주 금연을 실시했다. “술 한잔에 논 한 평 담배 한 대에 밭 한 평”이라면서 절제 운동에 앞장을 섰다. 우리도 옛 정신으로 돌아가 금주 금연을 철저히 하도록 하자.

어느 기독교 계통의 출판사가 작년에 결산을 했더니 4억 몇 천만 원이 적자가 났었기에 감사를 의뢰했더니 간부들이 일류 호텔에서 회의하고 자고 먹은 비용이었으며 어느 조찬 기도회는 사람도 얼마 모이지를 앉았는데 240여만원의 비용이 소비되므로 기독교 실업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2. 국민 모두가 외채 갚기에 동참하면 된다.

1907년 일본에게 빚진 1천 3백만원을 갚지 못해 국도를 빼앗길 뻔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부녀들이 결혼 때 받은 금반지 금비녀 등을 내 놓았고 시골 사람들은 나무 판 돈까지 내므로 순식간에 수십만 원이 모금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과 일진회(一進會)의 방해공작으로 좌절되기는 했지만 그 때의 정신으로 전 국민이 외채 갚기 운동에 임한다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는다.

사람은 잠을 자도 돈은 자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라의 빚이 내 빚인줄 알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외채 갚기 운동에 솔선수범하자.

나라를 잃으면 우리의 설 땅이 어디겠는가! 월남을 보라! 나라가 있을 때는 자유를 만끽했지만 나라 잃은 다음에는 대부분 피난가다가 바다에 빠져 고기밥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불신자들에게 본보기로 외채 갚기에 적극 동참하자. 일정 때 원수 나라 위해서도 우리의 부모들은 귀중한 생명, 교회종, 낯그릇, 숫가락 등을 바치지 아니했는가! 그러므로 나라의 외채를 갚기 위해 모금하는 것은 선교비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인줄 필자는 생각한다.

3. 기도하고 실천하면 된다.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거듭 강조하셨다 (마7:7~8). 이는 간절한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구하고 발로 찾고 손을 움직이는 언행일치의 기도라야 응답이 있다는 말인 것이다.

서울 불광동 뒷산에 건전한 기도원이 있다. 원장 김 원석 장로는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들에게 비닐 봉투를 하나씩 주어 송충이를 잡으면서 없애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다. 그러나 잡아도 또 올라오곤 했다. 그런데 한 날 아침은 4월 초순인데도 갑자기 영하 6도로 기온이 떨어짐으로 송충이 알까지 완전히 얼어 죽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렇다! 기도하고 실행하고 실행하고 기도하면 기도응답은 틀림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이치대로만 사는 자가 아니요, 초자연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다. 어린이가 바친 5명 2어는 보잘 것 없는 한끼의 도시락이지만 창조주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니 아이와 여자 외에 5천명 가량이 먹고 부스러기가 열 두 광주리에 남은 이적이 된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외채를 갚는다는 것은 대양의 물 한방울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1천만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절약하고 외채 갚기 운동에 동참을 한다면 북음전파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주여! 외채 갚기 운동을 성사시켜 주소서!

미국 개혁신과 교회의 역사

존 · 이 · 힌스트라
〈뉴욕노회 총무〉

- … *이 글은 뉴욕 총현교회 박종만 목사님께서 소속해 있는 미국 개혁신과 교회…○
○… 뉴욕대회 사무총장인 존. 이. 힌스트라께서 기고해 주신 것이다. 필자는 작년…○
○… 11월 박종만 목사님 초청 서류 관계로 직접 한국과 본 교회를 다녀간 적이…○
○… 있다.〈편집자 주〉 …○

미국 개혁신(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이하 R. C. A로 약칭함) 교회는 16세기 유럽에서 종교개혁으로 인해 발생한 장로교회 가족들 중의 하나이다. 본 R. C. A는 한국의 초대 선교사였던 호레이스 언더우드 목사의 교회로 그는 한국에 파송되기 직전인 1884년 R. C. A에서 안수를 받았고, 또 그는 R. C. A 뉴 브린스위크 신학교에서 신학훈련을 받았다.

많은 한국인 장로교인들이 미국에서 장로교 예배 형식과 복음적인 정신때문에 미국에서 R. C. A 교회에 출석한다. 따라서 한국의 교회들과는 실질적인 자매관계에 있다 하겠다.

자신을 “개혁신” 혹은 “장로”로 묘사하는 교회

들은 같은 신학 및 교회 정치 배경을 갖고 있다. R. C. A는 그 신학을 묘사하는 “개혁신”란 이름을, 장로교회는 교회정치 체제를 묘사하는 이름을 택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미국의 장로교회가 그 정치를 묘사하는 “장로”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그 신학은 개혁신 신학이다. 둘은 참으로 공동의 뿌리를 갖고 있다. 최초의 미국 개혁신과 교회의 공동의회가 1628년 현재 뉴욕의 저지대에 설립되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뉴욕이 아닌 뉴 암스텔담이란 이름으로 알려졌고, 전지역이 신화란(The New Netherlands, 新和蘭)이라고 불리워졌다. 그 교회는 신세계에 장사와 무역을 하러 온 화란인 이주자들에 의해 세워졌

고, 최초의 개혁신과 교회 예배는 1614년 경 한 개인의 집에서 드려졌다. 최초의 정규예배는 1623년 현 맨해튼 저지 돌출부인 포트에 있는 정미소의 2층에서 가졌다. 예배는 안수 받은 교회직원이 아닌 바스티안 크롤이라는 이름을 가진 “병자 위로자”라고 불리워지던 평신도에 의해 인도되었는데, “병자 위로자”란 젊은이를 가르치고, 또 위대한 화란의 목회자들의 설교를 읽기위하여 교회의 예배 의식서를 사용하여 예배를 인도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설교를 준비한다거나 세례 혹은 성찬식을 지키는 것을 허락을 받지 못했다. 1926년 두번째 병자 위로자인 잔 저익이 도착했으며 이 두 사람은 성실하게 일했고 또한 회중의 영적인 생활의 성장을 위하여 목사를 보내주도록 본국교회에 간청했다.

최초의 식민지 총독인 피터 미뉴엘은 1627년에 도착했는데,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독일 베젤에 있는 개혁신파의 장로였었다.

그도 역시 복음을 위한 정규 목회자의 필요성을 알고 화란 암스텔담 노회에 화란말로는 도미니에 즉 목사를 신화란으로 보내주도록 요청했다. 그의 요청은 곧 응답되어 1628년 요나 마이켈리어스 도미니에 목사가 뉴 암스텔담에 도착했다. 그해 4월에 정미소의 윗층에서 그는 성찬식을 거행했고 공동의회를 조직했다. 식민지 총독인 피터 미뉴엘은 잔 저익과 같이 장로로 장립되었다. 그 첫번 예배에는 프랑스인과 화란인이 함께한 약 50명의 사람이 참석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미국 개혁신과 교회는 정규적인 목회사역을 해왔고,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목회사역을 해온 교회로는 가장 오래된 교회이다.

즉 다른 어떤 교단이나 신앙 공동체도 R. C. A 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때는 전 개신교 운동이 시작된 시대였다. 우리가 본바와 같이 개혁신과 교회는 화란 즉 화란에 있던 개혁신과 교회로부터 나왔다. 그것은 1500년대 후반기에 시작되었다.

미국 개혁신과 교회가 시작된 1628년에는 화란의 개혁신과 교회도 아직 초창기였다. 화란 개혁신과 교회의 역사에서 재미있는 사실 중의 하나는 그 알려진 최초의 회중이 화란이 아닌 찰스 5세에 의한 박해를 피해 화란으로부터 도망간 화란인 피난민들에 의해 영국에서 세워졌다는 것이다. 화란인 피난민들이 에드워드 6세 왕에게 런던에서 회중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청원한 것은 1550년이었으며, 1550년 7월에 에드워드 왕은 그들에게 전에 오스틴 순회전도자들이 사용했던 교회를 쓰도록 허락해 주었다.

흥미롭게도 이 공동의회 첫번째 목사는 화란인이 아닌 존 아라스코라는 폴란드인이었지만 이 교회는 아직도 런던에 있는 화란인 교회가 소유하고 있다. 최초의 화란교회의 최초의 목사가 된 존 라스코는 폴란드 귀족으로 폴란드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교로서 1536년 안수를 받았었다. 그렇지만 후에 그는 개신교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폴란드를 떠나야 했고, 14년간을 보헤미아와 독일에서 보냈다. 거기서 그는 개혁신과 교회의 지도자들과 친한 친구가 되어 개혁신과 의 확신과 이념을 함께 하게 되었다. 런던에 와서 그는 그의 회중들에게 교리와 법규와 예배에 개혁신주의적 형식을 부여했다. 1550년에 화란인들의 두번째 피난민 교회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세워졌다. 후에 그것은 팔라티나테에 있는 한 도시인 프랑켄팔로 이전했고, 작은 프랑스인 피난민들과 힘을 합쳤다.

두 집단의 예배를 통일하고자하여 피터 다테엔 목사는 런던에 있는 라스코에 의해 사용되는 의식의 일부 뿐만 아니라 존 칼빈이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는 그의 회중을 위해 준비했던 프랑스 예배의식의 요소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예배서를 준비하였다. 계속해서 1545년 이전에 이곳에 와 있었던 피난민들에 의해 라인 저지대에 있는 베젤이라는 독일도시에서 세번째 공동의회가 형성되었다.

개혁신주의 운동

신세계에서의 교회

미국 최초의 개척과 교회 목사인 요나스 마이컬리어스는 1584년에 태어났다. 그는 라이덴 대학에서 공부했고, 화란에서 농촌목회자 생활을 했었으며, 아프리카와 브라질 연안에서 해군 군목으로서도 봉사를 했었다.

1628년에 그가 도착해서 최초로 당회를 조직했는데 참으로 이런 종류로는 미국에서 최초의 회집이었다. 화란으로부터 교회 공인서가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 주어졌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신앙고백을 허락 받았다. 미국 최초의 교회를 조직한 날자는 1628년 4월 10일 이었다. 약 50명의 성찬 참석 가능한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마이컬리어스의 삶은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삶이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그들이 도착한 지 이주 만에 죽었고, 아내없이 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회를 계속하였고, 근처에 있는 인디안들까지 복음화 하려고 노력을 기우렸다. 그러나 큰 성과는 없었던것 같다. 사실, 그는 그들이 아주 야만적이고 거칠어서 예외범절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는 나이든 인디안들에 관한한 희망을 갖고 있었으며, 그는 젊은 사람들을 복음화 하기위한 계획도 추진했으나 결정적인 결과는 얻지 못한 것 같다. 1664년 영국에게 정복당하기 전까지 신화란 지역에서 16명 정도의 복음 사역자들이 개척(주의) 교회를 위해 일했다. 마이컬리어스는 1632년 화란으로 되돌아갔고 에비라더스 보가디스가 후임으로 왔다. 그의 사역기간 동안에 교회건물과 목사관이 세워졌다. 요하네스 메가폴렌시스 목사는 1642년부터 1670년까지 봉사했는데, 최초로 현 뉴욕주 알바니인 뉴 암스텔담 북쪽의 포트 오렌지의 목회자로 지명 받았다. 메가폴렌시스 목사는 여러 가지면에서 마이컬리어스 목사보다 유능하고 매력있는 지도자였다. 인디안을 야만인으로 보는 뉴 암스텔담에 있는

목회자들과는 달리 포트 오렌지의 이 목사는 그들을 선교 대상으로 보고 관심을 가졌다. 그는 그들의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배웠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세례를 주고 그 교회의 성찬식에도 받아들였다. 즉 신세계에서 최초로 국내 선교 계획이 착수된 것은 알바니에 있는 바로 이 교회로부터였다.

메가폴렌시스 목사의 이 인디안과 관계된 사역이 카톨릭의 유명한 선교사 아이작 조그스와 접촉하게 했는데, 어느날 그가 개종시키려고 노력하던 인디안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 두려움 모르는 프랑스인 선교사는 알바니 근처에 있는 적대적인 인디안 집단에 의해 붙잡혔었고, 화란 개척과 목사가 그를 포로로 잡은 사람들로부터 구출해 주었고 그를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목사관 지하실에 안전하게 숨겨 주었다.

영국의 지배

1664년 9월 4일 네척의 영국 전함이 뉴 암스텔담 항구에 도착했다. 함대는 와서 부두에 대고 그들의 대표들을 조준하였으므로 온 도시가 큰 혼란에 빠졌고, 당시 총독이던 피터 스터이베싼트는 그들과 싸우고자 했다. 그러나 스터이베싼트는 뉴 암스텔담에 있는 교회로 옮겨온 메가폴렌시스 목사의 충고에 결국 동의하고 식민지는 항복하였다.

비록 식민지 정부는 당시 영국 지배하에 들게 되었지만 화란인들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배적인 역할을 계속했다.

화란 혹은 인디안에서 연유한 대부분의 지역 이름들이 정복후에 그대로 계속되었다. 뉴 암스텔담은 뉴욕이 되고, 오렌지는 알바니가 되었지만 뉴욕이 들어있는 지도의 대부분의 지역에는 화란식의 이름들이 계속 늘어만 갔고 1763년까지 화란어는 개척과 교회에서 계속 쓰여졌다.

그 이후 1800년 까지는 영어와 화란어가 함께

쓰여 지다가 그 이후 개혁파 교회에서도 영어가 주로 쓰이게 되었다.

미국개혁파 교회의 형성

1792년에 미국 개혁파 교회는 그 자신의 헌법과 고유의 예배의식 및 정치형태를 채택하였다. 알바니와 뉴욕의 두개의 특별 대회로 총대회가 형성되었으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이 새로운 조직체는 독립적이고, 자치적이며, 그 자신의 유산에 자부심을 갖고 충성하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열정을 갖고, 젊은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열심이었다. 헌법이 채택되었을 당시 40명의 목사 및 116개의 교회가 있었다. 미국 독립 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화란 개혁파 교회는 서부 개척 이민의 대열에 참여하는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새로운 개혁파 공동의회들이 미시간, 캔터키, 인디애나 및 일리노이에 세워졌고, 캐나다로의 이민도 있었으며, 온타리오 지방에도 여러개의 새로운 공동의회들이 조직되었다. 이 역사적인 시기에 스코트랜드에 배경을 둔 미국의 자매교파의 하나인 장로교파도 똑같이 그 자신의 공동의회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수많은 남부에 있는 개혁파 교회 공동의회들이 그 지역에서 장로교 선교부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장로교파로 넘어갔으며, 여전히 늘어나고 있었다. 사실 식민 초기에 비교한다면 아주 놀랄만한 성장이었다. 19세기(1880년대)가 시작되었을 때는 59명의 목사와 139개의 교회가 되었으며 50년후에는 282개 교회에 299명의 목사가 되었고, 이러한 교회들도 미시간노회와 새로운 노회(Classis)들이 형성되었다. 일리노이노회를 포함하는 하나의 화란인 교회로 시작되었으나 점점 더 복수 언어를 사용하

는 교회가 되어갔고, 1900년에는 특별히 동부의 교회들의 경우 상당한 수의 프랑스인들과 함께 교회 전 교인의 1/3이 독일계로 구성되었다.

19세기 중반 두번째 화란인 이민에 의해 개혁파 교회의 전 역사가 달라지게 되었다. 이민자들은 미국의 중서부로 갔으며 R. C. A 에 수십개의 새로운 공동의회를 구성할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선교하려는 열심을 가진 교회

R. C. A에 한가지 결정적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레이스 언더우드 목사가 복음의 불을 가지고 한국에 간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는 19세기 후반기에 R. C. A 와 그 신학교가 강조한 선교의 열의에 관한 훌륭한 반영일 뿐이다.

R. C. A는 다른 어떤 개신교인들보다 먼저 중동과 인도와 중국 및 일본에 선교사업을 시작한 교파이다. 오늘날 R. C. A 선교는 대만, 멕시코, 필리핀, 아프리카 및 남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R. C. A에는 950개의 공동의회가 있으며 두개의 신학교 즉 미시간주의 홀랜드에 있는 웨스틴 신학교 및 뉴저지주 뉴브런스 워에 있는 뉴 브런스 워 신학교를 가지고 있다. 또한 3개의 대학 즉 미시간 주 홀랜드의 호프 대학 아이오와 주 펠라에 있는 센트럴 대학 및 아이오와 주 오렌지 시에 있는 노스웨스틴 대학이 있다.

우리 교회는 미국 전역 특별히 뉴욕과 캘리포니아 주에서 많은 한국인들의 새로운 공동의회와 지금도 계속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교회이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교회가 기초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란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는 교회이다.

성경과 독서



김 장 군

〈목사·성경연구원 담당〉

도서관 문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책과 독서를 생각할 때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책은 길이요, 지식은 힘이고, 독서는 의무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책 가운데 사고의 길, 정신의 길, 문화의 길, 정서생활의 길, 나아가서는 사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책이 없는 사회, 독서 없는 인간을 생각할 수 없을 것이고 작게는 생활정보에서부터 정신 생활을 위한 영양과 풍요 그리고 삶의 리듬은 독서에서 얻어진다고 보겠습니다.

1) 무엇을 읽을 것인가?

사람은 그가 사귀고 있는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인격은 그가 읽는 책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의 내적 굶주림과 열망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체질에 따라서 식습관이 다르듯이 그 사람됨에 따라서 그가 읽는 책이 다르기 마련이고 또한 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며 독서라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출판사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대한 양의 일반 서적과 종교 서적들은 무엇을 읽어야 할지를 식별하기 어렵게 해줍니다. 클라우디우스 클리어(Claudius Clear)라는 미국의 작가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처럼 책들을 나눌 수 있어야한다고 제의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좋은 책만 읽을 여유 밖에 없으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데 가장 최대의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선택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대하여 보면 용이치 않습니다. 우선 책을 대함에 있어서 그 책의 제목, 목차, 서문, 서론 및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이것들은 가슴을 뛰게 만들었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고픈 충동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실로 위대한 사람들의 삶은 아직도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승화시킬 수 있음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결론 등의 부분을 정독하고 그 다음에 본문 독서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나에게서의 습관이 되어 있는데, 추천할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 관한 좋은 서평이 나와 있으면 입수하여 미리 읽어 두는 것도 책을 선택하는데 적지 않은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신학서적을 선택하는 데 교역자나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저의 변변치 않은 독서생활 가운데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책들은 영감에 불을 붙이고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였습니다. 이것들은 가슴을 뛰게 만들었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고픈 충동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실로 위대한 사람들의 삶은 아직도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승화시킬 수 있음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독서가 정서생활의 방편이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하여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창조6일째 집승과 같은 날 창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동물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기에 육신의 양식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구해야 하고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승과 사람의 다른 점 중의 하나입니다(창2:7). 사탄은 사람이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거짓말을 한 마디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마4:4)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 줍니다(히4:12).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딤후3:15, 16) 연약하여 쓰러져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시119:107).

예수님은 육신의 떡만을 구하면서 주리고 목마른 인생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6:35)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요6:54)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영접하고 믿으면서 생활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바로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요5:56).

이렇게 살 때 예수님께서서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또한 약속하셨습니다(요15:5~6).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행복처럼 열매를 맺고 거두는 인생이 됩니다(시1:1~6).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로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며(창15:1~7, 행23:11), 시대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꿈을 잃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전을 제시하여 줍니다(삼상3:1). 무엇보다도 사람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합니다(벧전1:23). 이처럼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절대적인 유익을 주고 생명을 공급합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사조의 흐름이나 시대정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절실히 생각해 됩니다.



2)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에는 술술 내려가며 읽을 책도 있고, 따지며 읽어야 할 책도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의미들 중의 하나는 씹어있거나 인쇄된 자료에서부터 그 글씨들이 나타내고 있는 사상들을 배우고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면에서 읽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독서의 열매를 효과적으로 맺는 일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읽어서 아무 소용이나 유익이나 맛을 얻지 못한다면 독서는 시간 낭비일 것이고 시간의 낭비는 생의 소모일 뿐입니다. 필요에 따라 또는 서적과 주제에 따라 정독이든 통독이든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독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시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간은 나에게 독서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지 않다. 독서할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실감나는 충고입니다. 학생 때처럼 어떤 독서플랜 같은 것을 세운다는 것은 한낱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도 경험을 통하여 확인된 것입니다. 주어진 업무와 가정에서의 잡무와 어린 아이들과의 시간중 이것 저것 재치 놓으면 독서시간이 별로 없게 마련이고 시간이 있다치더라도 독서를 위한 이상적인 환경이 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시간 활용에 있어서 일상 생활 가운데에 여가 저기 흩어져 낭비되는 시간과 찢투리로 버려지는 시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유효적절히 독서로 활용이 될 때 시간을 다시

좁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독서가 가장 적절한 시간일수록 전문적이고 숙고를 요하는 책을 읽고 그 밖에 버려지는 시간을 활용하여 신문이나, 읽기 쉽거나 가벼운 책을 읽어 왔습니다. 경우에 따라 휴식을 가진다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자리에 누워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려운 책을 읽다가 쉬운 책으로 바꾸거나, 한 분야의 책을 읽다가 다른 분야의 책으로 옮기거나 또는 책을 읽다가 신문이나 잡지를 읽음으로써 넉넉히 필요한 휴식을 얻을 수가 있었읍니다.

사람들이 여유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저축을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을 적절히 독서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시간을 얻고, 저축하는 길임을 아는 것이 생활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기회있을 때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수도 있겠으나 가능하다 가장 조용하고 집중하기에 편리한 이른 아침 첫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루의 첫 시간이라는 의미와 하루를 말씀으로 무장하여 시작 한다는 것과 또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등불을 준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민등록증과 천국시민권을 아울러 누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찾고 추구하고 일용할 것을 얻는 일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본생활 이라고 봅니다.

맺음말

독서를 통하여 우리의 정서생활에 양식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므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배부를 것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의 삶에 싱싱함과 시절을 좇아 맺는 생명의 열매로 추수하는 기쁨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3)

1회초 노아웃부터



박 승 준

박 승 준

(장로, 기획조정실 위원)

86-88 스포츠 잔치집이라는 궁지 때문인지 우리는 스포츠 흥수 속에 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인기종목은 내가 생각하기엔「야구」가 아닐까? 85 영광의 얼굴들-한국은「삼성 라이온즈」일본에선「한신 타이거즈」본고장 미국은「캔자스시티 로열즈」팀이다. 「월드시리즈」는 양대리그(내셔널과 아메리칸)의 패자끼리 7전선 4승제로 챔피언이 결정되는 경기방식이다.

「캔자스시티 로열즈」의 월드시리즈패권은 고비고비를 간신히 넘긴 끝에 이뤄진 것이라 기적의 팀으로 야구사에 장식될 것이다. 「로열즈」는 아메리칸리그 서부지역 정규시즌 91승 71 패로 「캘리포니아 에인절스」에 한 게임차로 앞서 우승하면서 리그 우승 결정 7차전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즈」에 먼저 2패를 당하는 등 1승 3패의 위기를 맞았으나 4승 3패로 기사희생에 성공하여 「월드시리즈」에 첫 진출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팀과 격돌을 벌었는데 또 다시 1승 3패로 막판에 몰렸었으나 5차전부터 연3연승의 대역전 우승을 차지 챔피언을 따낸 것이다. 특히 6차전에선 1:0으로 뒤지다 9회말 1사 만루에서 대타작전의 극적 성공으로 2:1로 역전승한 저력의 팀. 109년 전통의 명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팀(리그우승 14회 월드우승 9회)과 16년의 신흥세력의 「로열즈」의 격돌은 야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은 단연 「카디널즈」의 우승을 전망했으나 불발로 대단원의 막은 내려졌다.

743억이란 거액이 7차전을 치르는 동안 뿌려진 호황은 가히 인기의 척도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 결코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이 또한 승부의 세계임을 잘안다. 스탠드의 수만의 관중의 열광과 함성은 뜨겁다. 승리의 감격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의 멋진 드라마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해는 또 다시 뜨며 강물은 흘러가고 새해 새날은 곧 밝아온다. 스탠드의 고요함과 고독 그리고 우수가 깃든 혈맥은 나상을 통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세익스피어는 말했다. “세계는 무대요, 인생은 배우다. 등장에서 시작되며 퇴장해서 끝난다.” 여기에 주연, 조연, 단역이 문제가 아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의 확립이 승패를 가름함을 잊지 말자. 삶의 길목에서 스스로 묻고 고백해 본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느 길을 걸을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를……

이 땅의 모든 기독교 계통의 학교팀과 선교를 목적인 운동팀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

「주님! 선수 개개인과 임원이 하나님의 진신 감추를 입게 하시고 주님의 총지휘 아래 십자가를 앞세워 신한 싸움을 싸우고 늘 승리하여 의의 면류관을 쓰게 하옵소서. 이들의 이기고자 함은 다른 팀을 업신여기고자 함도 아니며 자신들의 기쁨과 명예를 위함도 아니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저들이 사용하는 방망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되며 공은 다윗의 물매와 돌과 같아서 어떠한 골리앗과 애굽팀도 없드리지게 할 수 있는 위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야구는 투아웃부터라지만 인생과 신앙은 그렇지 않다. 1회초 노아웃부터이다.

〈단 상〉

이산가족 상호방문을 보고



조 선 근

(장로, 월간 중현 편집위원)

역사적인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

남과 북으로 흩어져 살아온 이산가족들은 지난 9월 21일 서울과 평양에서 만났다. 생사조차 알 길이 없었던 부모, 형제, 남매 등 40년 만에 만난 혈육들은 흐르는 눈물을 가누지 못했다. 그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지켜본 1천만 이산가족들도 가슴 속에서 같은 눈물을 흘렸다. 40년의 꿈, 그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소수의 만남이었지만 이것은 실로 엄청난 어려움과 난관을 거친 역사적인 큰 걸음이었다. 북한 공산당이 워낙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들이라 실현 불가능한 일로만 알았었다. 얼마큼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때를 회상해 보는 지금도 감격, 바로 그것이었다.

한편 이산가족의 만남은 어느 기자가 말한대로 감격과 기쁨이 아니라 오열과 한숨으로 얼룩진 하나의 안타까움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단절의 장벽이 만들어낸 북한 생활의 이질성이 인간의 모습마저 변화시켰다는 사실에서 기나긴 분단의 한과 아픔을 함께하고 있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이산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감격과 충격 속에 착잡한 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

족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섭리로 받아들이고 싶다.

정말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곳

평양을 방문한 황 준근 목사님의 어머니는 독실한 신자였다고 한다. 황목사님에게 혼자 이남에 내려가라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공산치하에 남고 말았다고 했다. 그렇게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던 분이 이런 신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 어머니는 예배드리지 않도록 말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을 포기했다는 것인가? 사전에 교육을 받고 감시원 때문에 약한 말을 했다는 것일까?

또한 지 학순 주교님의 여동생의 경우를 보자. “우리는 살아서 천당가는데 오빠는 죽어서 천당가겠다니 돌았구만요. 북쪽에서는 모두가 잘 먹고 근심없이 잘 살아요. 이곳이 천당인데 어디서 천당을 찾겠다는 거야요?” 했다. 크게 당황했던 지주교님은 서울에 돌아온 후 여동생 일로 인하여, 형님 등 가족 7명이 세상을 떠났다고도 더 슬프고 괴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교회가 없을까? 아무리 신앙의 자유

가 억압된 곳이라 해도 선전용 교회당이라도 몇 개 놔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더러 있었다. 그런데 취재방담에 나온 한 기자는 교회가 없다는 것을 김일성대학 철학교수의 말을 빌어 전했다. 그리고 그 말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평양의 어느 청년은 우리 취재팀의 인터뷰에서 교회가 뭐냐고 반문한 것으로 그들은 교회란 용어조차 몰랐다. 내 어릴 적 북한에서 공산당 사람들의 종교는 아편이요 종교는 과학과 진보의 적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방해되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뿌리채 뽑아 버려야 한다는 억지 주장이 다시 들리는 듯했다.

북녘땅에 울린 복음의 메아리

뭐니뭐니 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중 가장 중요한 사건은 북녘땅에서 공식적으로 드린 예배를 들 수 있겠다. 북한 방문 3일째인 9월 22일 평양에서 우리측 방문단 및 예술단 가운데 신도 70여명이 신·구교 합동으로 예배와 미사를 드렸다. 설교가 계속되는 동안 목사님도 울고 신도들도 울고 기자들도 울었다. 모두들 눈물을 펄펄 쏟으며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수행자는 이날의 예배에 대하여 “분단 40년, 교회 종소리가 멎은 지도 40년, 종교의 불모지에서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감격스러운 것이었다”고 전했다.

아! 평양에서……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컫던 그곳에서 그처럼 감격스런 예배가 드려지다니! 이것 역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로서 한국 성도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가 안겨준 하나님의 응답이라 여기면서 감사한다. 교회가 없으며 기도조차 마음속으로밖에 못 하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곳에 하루속히 마음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온의 때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드린다.

북한 선교의 문은 열리려는가

이번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은 기쁨보다는 오히려 슬픔과 실망이 더 큰 것이긴 했지만, 그러

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남한 성도들 중 소수나마 북한에 갔었고, 목사님과 교회가 없는 그 하늘 아래에서 예배를 드린 일이다. 그토록 열리기 어려운 북쪽의 문, 평양의 문이 조금은 열렸었다는 데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음이 분명하다. 금년은 특히 광복 40년이 되는 해로서, 히브리 민족의 광야 40년과 맞먹는 해라 하여 우리는 성경적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한다. 다만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 40년을 유리하면서 시련을 겪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우리 민족은 광복 40년을 역경과 시련 중에 보내면서도 아직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한 것뿐이다. 평양 방문을 했던 한 인사는 “통일의 가능성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았다”고 술회한 바 있다. 아무리 현실이 그러하고 통일에의 전망이 흐리다 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난 9월 29일 저녁 찬양예배 후에 우리교회에서 평양방문에 참가했던 세분 중 두분의 보고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박 상준 집사님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돌아오는 날 아침, 침대 밑에 성경과 찬송가를 선물로 놓고 돌아왔다는 대목에서였다. 그 귀한 선물이 감시자 앞에서 전해졌을 때의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참으로 잘하신 일이라고 여겨졌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를 기대했다는 데서 필자는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의 일이 떠올랐다. 그는 1866년 자기가 탄 제너럴 서먼 배가 불탈 때 한문 성경책들을 육지를 향해 힘껏 던짐으로써 훗날 한국 선교에 크나큰 흔적을 남겼던 것이다.

남북 이산가족 방문의 의미는 여러 각도에서 음미하며 분석할 수 있겠다. 통일에 대한 열망과 함께 북한 선교에 대한 교계의 깊은 관심이 일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다는게 관심과 기도, 대북 방송 선교에 머물고 있다 해도, 때가 이르면 통일의 열쇠를 쥐신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리라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강명순 안수집사님

댁을 찾아서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믿음 안에서 인내와, 근면,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하시는 강명순 안수집사(64세) 댁을 방문했다.

평안남도 평양시 신리 128번지가 고향인 강

혈육의 정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남북이 분단된지 어언 36년의 세월이 흘렀다. 북에 부모와 처자와 친척을 남겨두고 온 이산가족들은 오늘도 그리움에 사무쳐 북녘 하늘 바라볼 때마다 한이 서린 눈물만 솟구친다. 모처럼의 북한 방문의 기회를 얻은 강명순 안수집사도 실향민의 애절한 정을 갖고 그리웠던 평양을 다녀왔다. 이번 호에서는 북한을 다녀온 성도중에서 안수집사인 강명순 집사댁을 탐방했다.

(편집자 주)

강집사는 유년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3남 2녀의 다복한 가정을 이끌고 있다.

장남(40세)은 봉명 삼주개발(주) 상무이사이고, 차남(38세)은 신회건설(주) 서울건설 사무소장이다.

|| 믿음안에서 인내 · 근면 · 책임완수를 봉사활동의 적극화로 더욱 젊어져야 ||

집사는 1921년 11월 15일생으로 경성대학(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기계공학과를 1946년 졸업한 뒤 32년간 인하대학과 한양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는 공학박사이다.

현재 학술원 정회원과 한양대학교 부총장인

삼남(28세)은 미국에 유학 미네소타大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장녀(36세)는 이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출가했으며, 차녀(30세)는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섬유계열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사진은 강명순 안수집사 가족일동

지난 10월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강집사는 7촌 조카의 가족상황 및 생활상태와 부모님의 별세시 상태를 알아보았으나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

1958년부터 충현교회에 등록을 하고 계속 출석해 오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교회, 그리고 젊은 신자의 모임, 봉사의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교회에 바라기도 했다.

자녀들 모두가 부모에게 효도함은 물론 건강하고, 정직하며, 학문에 열중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다.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지도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믿음, 소망, 사랑을 심어주고 이웃에게 이익과 사랑을 베푸는 데 인색하지 말것을 늘 당부하고 있다.

특히 강집사는 자신이 경험하는 사회 속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불의를 거부하고, 말씀(성경)을 기준으로 이웃사랑”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다.

전공했던 기계공학이 특기라는 강 집사는 어

학분야에도 뜻이 있어 열심히 공부하면서, 운동 경기로는 축구를 가장 좋아 하신다.

현재 충현교회 봉사부서는 장학위원인데 충분한 봉사를 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한 다음서 직장인 한양대학교 캠퍼스에서 복음 전파 활동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

기독교생 서클활동을 지도하고, 학교 교육방송을 통한 성경, 찬송 방송, 그리고 점심 휴식 시간을 이용한 선교방송에 주력하고 있다.

자녀들이 보통 이상의 예절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강집사는 현재까지 자녀 모두가 바른 길을 걷고 있고, 꾸준한 효도심의 발휘를 하는걸 보고 흠족케 생각하고 있다.

기자는 마지막 질문으로 충현교회 당회 및 교역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냐(?)는 물음에 “영적으로 굶주린 양떼를 먹이는데 수고가 많다”고 전제하고, “영적 양식이 될 풍성한 은혜의 설교, 봉사활동의 적극화, 뜻깊고 오묘한 성경해설의 강화, 그리고 젊은 신도(20~30대)를 위한 집회가 강화되어야 할 것들” 부탁했다.

대담/손 경 수 안수집사

방문보고

내가 본

평양과 북한선교



박 상 준

(집사, 북한선교원 서무부장)

내가 본 평양

나의 고향에 다시 찾아 가 볼 수 있게 된 것은 36년 동안의 기도 중의 응답이었다. 더군다나 꿈에 그리던 부모님과 형제를 상봉한다는 그 엄청난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이며 은혜인 줄로 믿는다. 나의 동네에는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삼촌, 사촌 등 많은 친척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상봉할 수 있는 확률은 기대 할 만했다.

가족 상봉 첫날에 발표된 가족은 20 가족이었고, 둘째 날은 15 가족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명단에선 누락되어 있었다. 정부의 배려로 1000

만 이산가족 중에서 어렵게 선발되어 고향까지 갔는데도 상봉하지 못한다는 일은 너무 안타깝고, 너무 기대에 어긋나고 너무나 슬픈 일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 보고 싶었던 이 심정 어떻게 위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끝에 나의 안내원에게 “여보, 우리 집은 여기서 잠시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이니 당신이 가서 나의 부모님과 형제들의 생사 문제라도 알아보고 소식을 알려 주시오.”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했다.

그런데 그 안내원은 마지막날 아침(9월 23일 아침 7시) 나를 로비에서 만나더니 “선생, 어머니 이름이 양 순도 이지요”라고 말하지 않겠음



사진설명/40년만에 평양에서 우리측 방문단에 의해 주일에배가 드러졌다.

니까. 그래서 감격에 차서 “맞아요, 맞아!” 하고 외쳤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없었다. 재촉하고 또 재촉하니 그는 대답이 역시 없었다. 그 순간 나의 마음은 더 격해지면서 눈에서 눈물이 펄펄 쏟아지고 말았다.

나는 나의 숙소로 돌아와 마음을 진정하고 상봉하지 못한 까닭을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그 원인은 교회 장로인 조부로부터 기독교 가족이며 1·4 후퇴때 내가 월남했고 이번에 신청한 나의 가족 상봉 대상자가 열성 당원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부모님과 형제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안전하기만을 간곡히 기도했다.

이번에 만난 사람들을 보면 대상이 노인이 아니면 사상이 견고한 열성 당원들만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다. 그것은 상봉시 순간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 처음 상봉할 때는 순간적으로 혈육의 눈물과 반가움에 동질감이 흘렀고 다음 순간

은 감시에 못이겨 이질감을 느끼는 것을 보고 “한 피 받아 이룬 부모 형제가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을까!”

만약 나도 저 상황이라면 어떠한 태도와 말을 건넸을까? 오히려 만나지 못한 것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이 되면서도 혼자 속으로 부모 형제의 이름을 불러 보았다. 36년전 집을 떠날 때 부모님 말씀이 “상준아 대동강 건너 작은 누나 집에 며칠만 갔다가 돌아와!” 하시면서 나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는데” 부모님, 오늘야 여기 고향 방문단으로 와 있는데 왜 저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왜 만나 주지 않습니까? 나를 잊으셨나요? 아니면 돌아가셨습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알아야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처럼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헛되게 하시렵니까? 이런 줄 알았으면 오지나 말 것을” 그러나 나의 본향의 고향 저 천국에서 부모 형제

를 만나기로 기도하고 소망을 갖기로 했다.

북한 선교에 대하여

“북녘 땅에 앓은 형제 복음으로 다시 찾자”라는 것이 우리 북한선교의 사명이기에 틈만 있으면 전도할 기회만을 찾기로 했다. 먼저 고려여관 일층 소극장에서 우리 일행은 36년만의 역사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만남과 이별」이라는 창세기 27:41~45절의 말씀으로 황준근 목사의 설교와 박인각 장로의 중보 기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개인적으로 내가 쉽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담당 안내원과 고려여관 층계에 있는 감시원과 만찬 석상에서의 옆자리 안내원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대화할 때마다 첫 마디는 “여보 선생, 북쪽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예,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내가 월남할 때만 해도 한 동네에 교회가 하나씩은 있었고 교회 십자가가 낮이나 밤이나 항상 볼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6·25때 미군 폭격기에 다 불타 버렸어요” “그럼 교회가 없다면 신자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나요?” “지금은 동네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안내해 주시지요.” “확실히 어느 곳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런 식의 답변으로 그들에게 사전 교육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성경, 찬송을 직접 주고 싶어 어디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보, 선생, 김일성·김정일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많이 산다고 해도 1세기밖에 못 살지 않겠어요? 죽으면 또 누구를 우상으로 믿겠어요?” 역시 그들은 대답이 없었다. 내가 또 “성경 찬송을 드릴까요?”라고 물으니 그중에 40대까지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은 모릅니다. 종교 문제는 각자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지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디 손위에 내놓으세요. 어디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

리 북쪽은 지상 낙원을 만들어 주신 ○○○수령님이 최고지요! 입 쌀밥에 자녀 교육도, 아파트, TV, 냉장고, 재봉틀 등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만족한 생활을 해요. 또 노인이 되면 사회보장도 잘되어 낚시도 관광도 의료 혜택도 있구요” 한참 잘 산다는 이야기만 털어 놓았었다.

그래서 나는 “그럼 잘 산다는 손을 봅시다”하고 몇 사람의 손을 보니 손톱은 다 달았고 손바닥은 굳은살로 꼭 차 있었고 얼굴색은 핏줄이 노출되어 영양의 부족함을 보였고 웃은 하류층에 속한 정도였고 속 시원히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지 못해 줄 담배만 피워대곤 했다. 평양인구는 150만명 200만명 등 안내자마다 다르고 총인구는 1500만명 1700만명, 1인당 GNP는 2000불이라고 전혀 엉뚱한 대답을 했다. 또 월소득은 얼마나”고 물으니 160~200불이며 안사람은 100~120불을 벌어서 한 가족당 월 260~320불이 된다고 하기에 “생활비는 얼마나 쓰느냐?” 하니 “그저 절반 정도 쓰지요 남은 것은 저축하지요” “무슨 저축이요?”라고 물으면 “그것은 안사람이 하지요”라고 대답하는 등 모두 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았다.

50대들은 모두 성경 찬송을 알고 있었고, 지금은 없다고 해서 내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리겠다고 하니 집에 가지고 가면 가족 중에서 신 고하게 되며, 직장에서는 숙청 당한다는 말이었다. 직접적으로는 도저히 전달이 안 되어서 떠나오는 날 아침 우리가 묵고 있던 방을 잘 정리하고 침대 베개 밑에 성경 찬송 선물 등을 놓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라도 북녘 땅에 복음의 씨가 심어져 그씨가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맺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북쪽에 폐쇄적인 체제와 부자유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 동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불일듯 일어났다. 『북쪽에 공산당 체제가 더 굳어지기 전 『남북통일을 위하여』 『슬기와 지혜로서 이산 가족 재회 확대를 위하여』 『힘을 모아 북한 선교를 위하여』 온 국민이 기도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단절의 40년

박 춘 봉

(집사·장년부)

유난히도 무덥던 지난 여름의 폭염을 용케도 넘기고 한숨돌리는 사이에 어느새 가을이 짙어 가는 것이다. 뒷산에 올라가면 단풍잎도 붉게 물들어 있다. 문득 수유리에서 살던 생각이 떠오른다. 영락기도원의 우거진 숲속도 이제는 서서히 가을단풍으로 물들어 가리라. 계곡길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 유석 조병옥박사의 묘소가 있다. 묘소옆 약수터에는 물을 길러 온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맑은 공기와 우거진 수목들도 가을 옷으로 바뀌어 가리라. 이름모를 새들은 자유롭게 창공을 나르며 지저귀는 소리는 자유를 구가하듯 즐거워한다. 그러나 새장에 갇혀 있는 새들은 그곳이 그들의 세계요 낙원으로 알리라.

40년만에 막혔던 북녘땅을 밟고 돌아온 151명의 한국의 각계각층의 인사들은 평양의 3박 4일은 숨막히는 시간들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세뇌교육으로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밖의 세상을 알지 못하는 북쪽 사람들은 그 곳을 지상천국이라고 우긴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일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받는 식량과 물품은 수령님의 배려로 받는다고 한다. 40년만에 만나는 혈육 앞에서 정치적 선전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던 때에도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셨다. 그리하여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선을 행하여 그 인권을 존중받게 하셨다. 그러나 악에 붉게 물들어 있는 공산독재자들은 흑을 백이라고 우긴다. 그리하여 순박한 백성들을 그들의 의사대로 추종시키며 선전도구로 이용한다. 그들은 백성들이 그들의 의도대로 추종하나 끊임없이 감시하는 것이다. 만약 그 체제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다가는 가차없이 숙청되어서 투옥 혹은 강제 수용소로 가는 것이다. 이 숨막히는 사회를 그들은 지상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끊임없는 세뇌교육으로 훈련받은 순박한 북한동포들은 마치 새장 안에서의 새들과 같이 그곳을 천국으로 알고 있을런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백은 백으로 드러나리라. 히브리서 4:12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들의 은폐한 죄악이 심판자의 눈 앞에 반드시 드러나는 날이 오리라. 바벨론으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그들이 살던 본성으로 돌아오던 것처럼 북녘동포도 그들이 갈망하는 해방의 날이 어서 와서 하나님의 품안에 안기고 자유대한의 품안으로 합류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드린다.

중공 선교

안 노 수

(집사 · 9교구 구의 3구역)

할렐루야!

이 글을 쓰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나는 선원이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다가 천 구백 칠십 팔년 이월 서
울로 이주했습니다.

그 해 삼월부터 충현교회를 출석하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여의치 않아 다시 승선하기로
결심 한것은 팔십 사년 칠월이었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제단되고 육천만 내백성 제
사장이 되어 세계를 향해 선교하는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개성, 해주, 사리원, 황주, 평양, 안주, 강
계, 만포, 선천, 신의주까지 원산, 함흥, 회령,
온성까지 돌아가 백두산 소나무 찍어 무너졌
던 성진, 다시짓고 평양가서 부흥회 하는 날을
주옵소서. 두만강가와 압록강가가 우리나라의
경계선이 되게 하옵소서.”

당회장 김 창인 목사님의 기도해 감화되었고,
내 굴수에 와달았습니다. ‘기왕에 승선하게 되
면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출입하게되니 입
항하는 항구마다 선교를 해보자. 그것이 믿는 자
로서 도리이며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하
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칠월부터 십일월 말까지 승선하기 위한
제반 수속을 끝내고, 선박회사도 선정해 놓았으
며 십이월 십이일 부산에서 부산해리호 편으로
출국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십이월 팔일 부랴부랴 서둘러서 인천 송의감
리교회에 소재하는 한국외향선교회 인천지부를
방문했습니다.

김 철환 선교사님과 면담을 하여 지의 뜻을 말
씀드렸더니 선교에 관한 책자와 녹음 테이프를
준비해 주셨으며 즉석에서 선교와 안전항해에
대해 기도해 주시면서 성공을 빌어 주셨습니다.

십이월 구일 주일에 매마칠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제목은 “승리”였으며 성경은 여호수아 삼장
일절에서 구절말씀 이셨습니다. 나의 앞날을 승
리로 축복해 주시는 나에 대한 설교같이 들렸읍
니다.

그날 오 태회 장로님의 안내로 본교회 세계선
교회 회장 한 경일장로님과 유 국남목사님께
간단한 출국인사를 드렸으며 십이월 십이일 출
국했습니다.

해리호에서 같은 선박에 승선하려는 동료선
원들 중에 대한그리스도교 신갈교회에 출석하시
는 동역자 최 강산 집사님이 동승하게 된 것은
나의 큰 위안이였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
주신 믿음의 형제이었습니다. 이분께서 계속 주
일에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십이월 십삼일 저녁, 일본 히로시마에서 본선
에 승선했고 드디어 항하는 시작되었습니다.



북대평양의 겨울철 바다는 거칠었고 바람은
거세었습니다. 높은 파도가 뱃전을 할퀴고 지나
갈 때 마다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철년의 공백이 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으로 되게 하지 마옵
소서” 우선 직무를 하기 위해 자새부터 가다들
었습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

울철 찬바람 옷으로 삼고 북서의 높은 파도 신발로 삼아 이 넓고 넓은 바다를 헤쳐 갈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은 창조주이신 당신을 알게 된 연고로소이다. 여호와 하나님, 바다로 요를 삼고 하늘로 이불삼아 이 넓은 바다에 누울지라도 주님께 감사함은 당신의 자녀된 연고로소이다. 선장되신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운항하시는 이때에 동승했으니, 주여! 내 영혼과 육체를 당신께 맡깁니다.” 마음 속에 평안이 왔습니다.

일본, 호주, 파푸아뉴기니아를 거쳐 다시 일본에 닿았습니다. 나의 업무과약과 직무수행에 바쁜 나머지 전도는 생각도 못해보고 분주하게 생활했습니다.

다시 항차가 시작되었고 본사로부터 목적 항구가 호주 마카이에서 중공 「황포아」라는 내용의 전보가 본선에 타전되어 왔습니다. 마음이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과 국경선을 연해있고 우리나라와는 끊어려도 끊을 수 없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중공땅!

지금은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인구 십이억을 포용한 이 거대한 땅! 우리 남한땅의 백배에 가까운 구백 오십 구만 평방킬로미터나 되는 광활한 면적. 이 곳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자유의 물결이 숨쉬게 된다면 얼어붙은 북녘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여러고성이 무너지듯 삼팔선이 복음으로 무너져 김 창인 목사님의 기도가 현실로 이루어 진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본선은 팔십 오년 삼월 십팔일, 호주 마카이에서 설탕 만사천톤을 싣고 중공 황포아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삼월 이십사일 주일 예배시에는 「선교를 합시다」란 제목으로 제가 맡아 선상에배를 인도했습니다.

사월 이일 주강장 하구에 도착. 그곳에서 파이롯트, 즉 물길 안내원 2명이 승선했습니다. 전통적인 청색 상하의와 청색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홍분과 호기심에서 가까이 가 보았습니다. 상의 팔 끝자락이 떨어져 나폴 거렸으며 옷에서는 더러운 때로 인해 반들 반들 윤이나고 있었습니다. 세탁을 모르는 것이 중국인들이라곤 하지만 너무 지나친 것 같았습니다.

강을 타고 일곱시간 동안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목적항인 황포아에 닿을 내려 입항 수속을 마치고 하역작업이 시작되었는데 많은 인

부들이 승선했습니다. 본선에 비치해 두었던 접대용품인 비누, 수건, 칫솔, 치약 등을 두 명의 감시 경찰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식사를 끝내고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 중국어로 된 「上面來的幫助」란 사십팔 페이지의 아주 작은 선교 책자를 인부들에게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받아보는 사람마다 심각했으며 선교 책자를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안주머니에 간직하고 다시 작업에 임했으며 작업이 끝나 휴식시간이면 다시 꺼내 보는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빠지선」에 오르는 것이 저지되었지만 땀감을 주는 척하면서 승선했게 되어 책을 주었습니다. 하역인부들 중에는 스무살 안팎의 여자들도 이십사 시간씩 노동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최 집사님은 양말과 겹드려 전도지를 여자 하역 노동자에게 주었습니다.

책을 받아 심각한 표정으로 읽었으며 감사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겉으로 풍기는 인상에서 감사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다음 날 상륙 했습니다.

황포아 시내에는 계엄령이 선포된 도시같이 스산한 분위기였으며 인적이 드물고 자동차가 보이지 않았고 문을 열고 있는 상점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전용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화폐 교환소에서 돈을 교환 하면서 화폐 교환원에게 전도지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읽어보라고 권했더니 주위를 살피며 책을 책상서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만발치에서 그들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고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뒤 책을 꺼내 보았습니다.

‘주여 저들을 도우소서!’ 기도했습니다.

외국인 전용백화점의 점원들은 거의가 20대 여성들이었는데 표정없이 무뚝뚝 했으며 묻는 말에만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물건을 사면서 또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보기 좋게 거절 당했습니다.

쇼우윈도우 끝에 전도지를 놓고 모르는 척 돌아서서 다른 코너쪽으로 가서 걸논으로 그 쪽을 보았습니다. 앞에 사람이 없음을 기회로 책을 집어들어 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데에서는 전도지를 읽지만 사람이 있

으면 책자를 감추는 것은 공통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외국인 전용 레스토랑(레스토랑 이라야 황포아 시내에 이곳 하나 밖에 없지 만)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홀은 넓으며 열 명 정도가 함께 둘러 앉아 식사할 수 있는 원탁 테이블이 쪽 놓여 있어서 우리 일행은 홀 맨 안쪽에 자리잡고 앉았습니다.

나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광둥 요리를 맛보겠구나. 새우튀김, 계점요리, 산해 진미가 나왔습니다. 음식이 짜고 맛이 없었습니다.

외국인만을 상대하는 전용 음식점이 이 정도이니 웨이터에게 「노우쿤」을 연발 했더니 요리사가 상해로 강습 받으러 갔기 때문이란 변명이었습니다.

정통적인 중국요리의 맛은 홍콩이나 대만에서는 맛볼 수 있지만 본토인 중국에서는 공산주의로 인해 전부 소멸되어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의 관리자나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나 종업원이 전부 책임없는 저급의 월급받는 노동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발전할 수 없음을 실감했습니다. 공산주의사회 전체가 이런식이라면 얼마 안가서는 멸망 할 것이 눈 앞에 보였습니다.

계산하면서 우리 테이블 담당 종업원에게 십원짜리 팁과 계산한 돈을 주었습니다. 또한 전도지도 주었습니다.

물론 주위를 살피며 거절 했지만 계산보다 십원이 더 많음을 확인하고 황망히 받아 챙기었습니다.

저녁 8시경에 식사가 끝나고 동료 선원들이 나이트 클럽이 있으니 가자고 제의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에 무슨 나이트 클럽이 있느냐고 반문했더니 아까 낮에 보아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귀선하는 통선시간이 열한시니까 세시간이란 시간이 남아 있으니 특히 갈 곳도 없고 하여 동료 선원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정막과 어두움으로 뒤덮인 황포아시에 유독 네온이 번쩍이는 곳에 나이트 클럽이 있었습니다. 동료 선원들은 표를 끊고 안으로 사라졌으며 최 집사님과 나는 정문걸 드락에 앉아 오가는 젊은층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 세명이 정문앞에 입장하지 못하고 서성 이었습니다. 저 여지들에게도 전도지를 건네 보시라고 최 집사님께 말씀드리자 최 집사님은 얼른 일어서서 그들 곁으로 다가가 전도지를 그들

중 한명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여자가 내용을 훑어 보는동안 동료들이 무엇이냐고 호기심에서 묻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전도지를 받은 그녀가 목청을 높이며 전도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둘러서서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삼장 십육절, 로마서 오장 팔절, 계시록 일장 오절을 읽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하나 둘 점점 더 증가 되어 대어 셋명이 모인 가운데 더욱 큰 소리로 읽어 즉석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책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최 집사님과 나에게는 더 이상의 책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동리에 가서 외치는 모습을 재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사장 이십팔절에서 이십구절)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엉뚱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공산주의 중공땅 그것도 나이트클럽 정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장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성화가 몇 장 주머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한장씩 주었고 표를 받는 문지기에 게도 주었습니다. 대단히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귀선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며칠 사이에 중국어로 된 전도지는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더 활동 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가 불통이고 전도책자는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어를 하지못함을 한탄 했습니다.

사월 십사일 황포아에서 하역작업을 완료하고 닻을 올려 진황따오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날씨는 잔잔했고 안개만이 자욱한 중국 연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중공의 많은 어선들과 어망이 항해하는데 여간 방해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똥 반도를 돌아 발해만으로 들어서서, 사월 이십사일 진황따오산해관에 도착했습니다. 일만톤 짜리 한 척의 배가 접안할 만한 하역부두였고 나머지는 조선소로 이용되는 부두였습니다.

‘전도용지도 다 소진되었고 그렇다고 중국어도 전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도리가 없구나!’ 하면서 상륙했습니다.

산해관은 시골농촌의 소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차편으로 한 시간 정도면 그 유명한 만리장성의 시발점이 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음호 계속)



당회장 김창인 목사

88대성회 총재로 임명

86. 세계 C·E대회 명예대회장도

본교회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88년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될 대부흥성회의 총재로 임명되었다.

한국내의 모든 교단이 참여하는 동 대부흥성회는 88 올림픽과 함께 기독교 행사로서는 최대의 맘모스 복음 전도대회이다. 또 김목사는 86년 8월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개최될 세계 C·E 대회 명예 대회장으로 위촉받았다.

세계 C·E 대회엔 세계 70여 개국에서 약 1천 5백여명의 C·E 대표들이 참석하여 약 1주일간 청년복음전도대회를 갖는 행사이다.

86년도 임직후보자

수료식 가져

성경연구원은 86년도 임직후

보자 수료식을 11월 20일(수)

오후 7시 본당에서 거행했다.

동 수료식엔 권사 45명, 남집사 47명, 여집사 82명, 권찰 98명 등 2백 72명이 수료했다.

교사양성부 수료식

주간성경공부 각반도

교사양성부 수료식이 12월 1일 거행되었으며 수료대상자는 84명이다.

또 주간 성경공부 각 반 수료식을 11월 하순경 일제히 가졌다. 수료대상자 및 학과목은 다음과 같다.

△ 월요일반(신명기) 43명
(강사: 조영길목사)

△ 월요일반(크로스웨이) 26명
(강사: 신성종목사)

△ 화요일반(마태복음) 63명

(강사: 김장근목사)

△ 화요일반(구약개론) 62명

(강사: 김희보목사)

△ 목요일반(바울서신) 98명

(강사: 윤형철목사)

△ 목요일반(여호수아서) 31명

(강사: 조영길목사)

△ 토요일반(로마서) 74명

(강사: 임종만목사)

계 397명

충현교회 출판부

교회는 기독교서적(설교집, 강해집, 기타 신앙문서집)을 출판하기 위하여 「도서출판 충현교회 출판부」 등록을 마쳤다.

서울특별시에서 나온 등록증에 의하면 등록번호 제 9-110호이며, 출판사 명칭은 도서출판 충현교회 출판부이다.

교3을 위한 기도회

교육위원회는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11월 17일(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507호실(고등부 집회실)에서 가졌다.

이날 강사는 신성종 목사(협동)였다.

제2차

교구총동원 전도

구역권찰회는 지난 9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본당 대예배실에서 제2차 교구 총동원 전도를 실시했다.

6백 60명이 참석한 총동원 전도에서 강사 김원남 목사는 교구전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리고 이세열 목사는 교회부흥과 전도와의 관계를 강의했다.

'86년도 각위원장 임명

기획조정실 폐지, 출판국 신설



당회서기겸
인사위원장
이응선 장로



구역권찰회회장
김원남 목사



건축위원장
임광식 장로



사무국국장
이태규 장로



예배위원장
한영철 목사



재정위원장
최석주 장로



자산관리위원장
윤종성 장로



감사위원장
김영개 장로



전도위원장
이세열 목사



성가위원장
김창근 목사



수 양 관
관리위원장
정석태 장로



장학위원장
윤명식 장로



세계선교회장
한경일 장로



북한선교위원장
오진국 장로



출판국국장
조현명 장로



충현동산 관리위원장
신현상 장로



봉사위원장
박치민 장로



교육위원장
조영길 목사

△ 예배위원회 위원장 한영철 목사

△ 성가위원회 위원장 김창근 목사

△ 전도위원회 위원장 이세열 목사

△ 북한선교위원회 위원장 오진국 장로

△ 충현세계선교회 회장 한경일 장로

△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목사

△ 봉사위원회 위원장 박치민 장로

△ 건축위원회 위원장 임광식 장로

△ 재정위원회 위원장 최석주 장로

△ 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종성 장로

△ 재단법인 충현동산관리 위원장 신현상 장로

△ 수양관 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석태 장로

△ 사무국 국장 이태규 장로

△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영개 장로

△ 인사위원회 위원장 이응선 장로

△ 장학위원회 위원장 윤명식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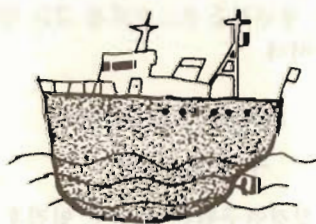
△ 출판국 국장 조현명 장로
한편 당회는 기획조정실을 폐지했으며 새로이 출판국을 설립하여 86년부터 집무를 시작한 다.

당회는 지난 10월 18일 오후 7시 당회실에서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86년도 각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선임된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 당회서기 이응선 장로

△ 구역권찰회 회장 김원남 목사



86년도 주교 각 부 지도: 부지도:

부장:부감 임명

당회는 86년도에 헌신할 주일 학교 각 부서의 지도 및 부지도, 그리고 부장과 부감을 임명했다.

1. 영아부

지도: 정소영 부장: 엄필성, 부감: 김상규, 한경숙

2. 유치부

지도: 정연희, 부지도: 김정자 부장: 정광호

부감: 김상덕, 이경현

3. 유년부

지도: 김연이 부장: 송기홍 부감: 한송규, 명정옥

4. 초등부

지도: 남창우 부장: 정운석 부감: 양종섭, 김정자

5. 소년부

지도: 김성운 부장: 송환창 부감: 노문환, 배옥인

6. 중등부

지도: 이원길 부장: 서동석 부감: 임무천, 지경애

7. 고등부

지도: 김익경 부장: 김광신 부감: 김환기, 공향조

8. 대학부

지도: 윤용규 부장: 정하우 부감: 황의만, 안춘진

9. 청년부

지도: 김장근 부장: 오태희 부감: 손경수, 손명순

10. 장년 2부

지도: 이성근 부장: 이병학 부감: 이욱, 백죽심

11. 장년 1부

지도: 김희보 부지도: 김동렬 부장: 우기진 부감: 박영식, 이신일

12. 소망부

지도: 조영길 부지도: 김정순 부장: 박인세 부감: 김재명, 김정옥

13. 직장부

지도: 김오용 부지도: 장해순 부장: 오정현 부감: 김인관, 임옥순

14. 새가정부

지도: 윤영탁 부장: 박승준 부감: 원응철, 안인현

15. 새신자부

지도: 구명신 부지도: 정금숙 부장: 이영세 부감: 김정태, 이명자

16. 세례부

지도: 김원남 부장: 최무길 부감: 황영일, 윤재춘

제 3 차

구역일군 교육

제 3 차 구역일군 구역을 11월 11~16일 하루를 택하여 각 교구별로 실시했다.

동 교육엔 교구별 등록, 제적 현황 및 전입전출 절차, 그리고 구역예배의 모범 교육이 강의되었다.

모범구역 및 구역원 표창

9월~11월/구역권찰회

구역권찰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모범구역과 구역원을 표창했다.

월별 표창구역 및 표창자는 다음과 같다.

△ 9월=모범구역: 논현 19 구역(구역장:한경숙집사) 모범 구역원: 노인덕권사(반포 9, 10 구역), 윤여전권사(논현 19 구역), 이종숙권사(하왕 6구역), 김업순집사(예장구역)

△ 10월=모범구역: 극동아파트구역(구역장: 김순옥집사) 모범 구역원: 안동현집사(극동아파트 구역)

△ 11월=모범구역: 벽제구역(구역장: 박태진집사)

86년도 임직자 임명

구역권찰회(회장 김원남목사)는 86년도 신임임직자 후보를 선정하여 당회의 임명을 받았다.

85년도 보다 약 6.3%의 증가율을 보인 86년도 신임 임직자는 권사 455명, 남집사 531명, 여집사 1,030명, 권찰 624명, 명예권사 62명, 명예집사 36명, 명예직 권사 48명, 명예직 집사 125명 등, 모두 2,911 명으로 집계되어 최종 당회의 승인을 받았다.

특히 권사는 1교구 9명, 2교구 8명, 3교구 4명, 4교구 5명, 5교구 2명, 6교구 7명, 7교구 3명, 8교구 6명, 9교구 4명, 10교구 4명, 계 52명이 신규 임명되었다.

김기정 장로
서울지구 장로회 회장
전국장로회 부회장 피선



본교회 김기정장로는 지난 11월 14일 서울지구 장로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서울지구 장로회는 서울지역의 13개 노회 연합회 소속된 장로들의 연합 친목단체로서 올바른 평신도 운동에 역점을 두는 장로들의 모임이다.

한편 김기정 장로는 전국 장로회 수석부회장으로도 피선되었다.

남·여전도회 총회 12월 3째주 회집

진도위원회 산하 남·여전도회는 85년도 지회 총회를 12월 3째주에 각각 개최키로 했다.

동 총회에서는 85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와 8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있을 예정이며, 임기만료된 임원진을 개편한다.

86년도에도 급년처럼 교회부흥과 전도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25일 구역권찰회 특별회의에서 교구 분할 조성

교구 분할 조정

지역장, 간사 배정

과 지역장, 간사배정이 확정되었다.

교구분할의 원칙은 계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1교구를 중심으로 분할 조정되었는데, 이로 인해 조정된 2교구를 비롯하여 3교구, 10교구의 분할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재조정된 안에 의하면 1교구는 교회 중심구역으로 교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대수를 적게 조정하고 원거리인 성남을 편입했다.

2교구는 교회당 외곽지역인 관계로 세대수를 1교구보다 더 배정했으며, 3교구는 2교구의 반포, 방배지역을 편입케 하고, 용산구를 10교구로 이관하였다.

또 3교구는 원거리에 있으나 안양, 수원등 세대가 증가하는 지역이므로 세대를 적게 배정했다.

10교구는 새에배당이 강남으로 이전한관계로 현저한 교인 감소현상을 보이므로 인접구역인 3교구의 용산구역을 편입하고 강북구역을 단일화했다.

새 가정부 세미나 성료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가정” 주제로

새가정부(부장 윤광일 장로)는 지난 10월 6일, 13일, 20일, 3회에 걸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가정”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인원 5백 50여 명이 회집된 동 세미나에서 강사 이영덕 박사(장로·서울대 교수)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중요성과 기능, 그리스도인 가정의 인간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교육에 대해 강의했다.

출판국 위원 임명

국장에 조현명 장로

당회는 86년도부터 집무가 시작될 출판국 위원을 임명했다.

임명된 위원은 다음과 같다.

국장 조현명 장로
지도 김장근 목사
간사 김차생 장로
위원 조선근 장로
손경수 집사

△당연직위원

조영길목사(교육 위원장)
김원남 목사(구역권찰회장) 이
응선 장로(당회서기)



제 4 차 성례식 세례·학습·입교등 183명

교회는 85년도 제 4 차 (마지막) 성례식을 지난 10월 10일 11일 본 교회당에서 거행했다.

문답과 함께 세례식을 가졌는데, 이번 4차엔 학습 61명, 세례 73명, 유세 37명, 입교 9명, 개종 3명 등, 총 1백 83명이다.

또 성례주일 수찬자는 5부에 걸쳐 5천 76명이다.

모범전도자 위로 간담회 노방전도자

전도 위원회(위원장 정석태 장로)는 지난 11월 10일(주) 오후 4시 30분 선교관 304호실에서 모범전도자 및 노방전도자 위로 및 간담회를 가졌다.

에스더 6지회 경비 후원으로 개최된 동 위로 간담회엔 약 60여명이 초청되어 1부 예배와 2부 간담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초청된 자는 3명이상 전도한 자, 85년도 전도왕과 병원, 교도소, 서울역, 명동 지역서 노방 전도한 자들이다.

85년도 전도왕은 1교구 조계진 권사가 29세대, 8교구 최금순 권사가 10세대, 9교구 정순자 집사가 13세대를 전도했다.

교육위원회 12월 16일

교육위원회 총회는 12월 16일 오후 7시 교육관 301호에서 개최되며, 85년도 교사총회는

12월 26일(목) 오후 7시 본당 및 교육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김연순 공로전도사

도서실에 기념도서 기증

본교회 김연순공로전도사(김기정장로 모친)는 기독교 세계관등 1백 14권의 도서를 도서실에 기증했다.

한편 도서실은 환경미화의 하나로 커튼시설을 했는데 조용하고 정서적인 분위기에서 도서 열람이 되도록 꾸며졌다.

그리고 본교회 김정경집사는 시가 72만원 상당인 서가(책꽂이) 3개를 기증했다.

교 사

단기훈련 성료

교사의 자질향상 높여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영길목사)가 주관한 교사 단기훈련이 지난 10월 26일 오후 3시부터 8시 30분까지 293명의 교사가 출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주교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동 단기훈련에서는 총신대 정성구 학장을 비롯하여 정삼지, 정일웅목사가 강의를 맡았다.

중년부는 장년 2부로

장년부는 장년 1부로 개칭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영길목사)는 86년도 각부 주일학교부서 중 중년부는 장년 2부로, 장년부는 장년 1부로 개칭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았다.

토막소식

★교회설립 32주년 기념 음악예배를 지난 9월 1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있었다.

이날 기념 음악예배는 김창근목사 사회로 진행, 홍중섭장로의 기도, 성경 이사야서 9장 1~7절 봉독 후 신성종목사가 「추수하는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 이후 연합 찬양대의 특별순서가 있었다.

★북한선교원에서는 9월 9~13일까지 시내산 기도원에서 목회내조자 경건훈련이 있었다.

★장로 성경공부가 9월 15일 주일부터 오후 6시 선교관 304호실에서 개강되었다. 강사는 이성근목사.

★본교회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말씀시리즈(1권 교회란 무엇인가? 2권 서로 사랑하자 3권 성도의 시험) 3권에 출간되었다.

★수도노회 제28회 정기회가 10월 15일 오전 10시 한광교회당에서 회집되어 본교회 김약경, 윤용규, 김오용, 윤창무, 장병기강도사의 목사 안수, 그리고 김성윤전도사의 강도사 인허가 있었다.

★11월 3일부터 주일 1부예배 및 저녁예배 설교를 신성종목사가 맡아 인도한다.

★86년도 제직 임명이 11월 24일 4부 예배시에 있었다.

★세계선교회는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 선교사들에게 보낼 각종 선물들을 접수하고 있다.

교우동정

새교우

삼구역	한명수	신정구	문금점	쌍문구	채풍목	신사구	이수인
양재구	주정웅	풍구	김경모	가락구	최금진	통미구	이국지
삼전구	이창근	구리구	김순옥	홍익구	이진성	장미구	홍숙이
봉화구	이철영	서반구	윤인덕	역삼구	오순례	초구	신영란
도화구	이봉진	논현구	김강웅	역삼구	최순희	로구	정용환
정랑리구	박영수	림구	송유근	역삼구	박미선	안구	장은정
역삼구	강춘자	구	신명기	상도구	김도현	대구	신복수
대치구	김주현	동구	김을환	미곡구	천삼순	이구	윤선례
신길구	김근정	의구	임을정	개포구	금정택	현구	양영열
상암구	양옥주	삼구	장운선	역삼구	김규식	원구	유장권
자양구	문에스터	초구	한순례	신사구	이금숙	당구	송막녀
개포구	박재근	경북구	김정옥	장신구	김연자	현구	김갑철
잠원구	배재덕	전구	황광자	장위구	박상례	삼구	이순덕
역삼구	소재옥	동구	정구옥	자양구	김청산	현구	여정례
송구	주경혜	구	최종란	개포구	정광수	수색구	박상운
을지4구	김옥순	삼구	김구진	대치구	정기자	전구	박인자
역삼구	김신종	개포구	박경식	아현구	채현석	통전4구	하은신
역삼구	박정애	점담구	채무선	고덕구	김진희	은구	김재오
반포구	김종채	점담구	김미경	예장구	유남결	신구	홍순호
신계구	한명하	점담구	박경호	역삼구	안경애	이태원구	이수인
신당구	조명구	장안구	신점숙	역삼구	김명희	동구	김관수
잠실구	나현순	성수구	조옥자	상도구	김경수	성수구	김덕영
역삼구	정병복	도구	최순자	장신구	양희선	서초구	이동우
상도구	양근식	노현구	최동식	행당구	김춘식	독산구	구기창
방화구	김중현	동구	노순옥	역삼구	송영순	구리구	서희철
돈암구	유양희	문구	진수경	불광외동	송용옥	성수구	이찬웅
신하왕구	우옥희	하왕구	김현정	성수구	조정숙	양재구	김수근
정담구	이철수	역삼구	최순애	대치구	허진강	논현구	안미나
역삼구	신택선	역삼구	박말순	서초삼호	김수근	대림구	송정현
봉천동	염은복	역삼구	한기녀	도봉구	강경희	장안구	최정식
역삼동	박진섭	역삼구	김홍성	구의구	홍상숙	중화구	김건한
창동	최경애	신고구	홍계순	서초삼호	이길자	당구	김영수
잠실동	임근희	미아구	안미영	서초삼호	심영란	역삼구	연정희
역삼동	정일선	전호구	배문수	역삼구	유복례	중화구	이수권
방배구	모경심	송정구	전영수	잠실구	장주아	구의구	박동규
신림	이대수	역삼구	윤봉금	역삼구	김성환	민수구	백숙자
	서은석	신림	이혜숙	역삼구	김동희	중화구	백은숙
	김재현		김혜선	역삼구	송혜란	중화구	김중자
				역삼구	정미원	중화구	김원중
				역삼구		중화구	김미례
				역삼구		중화구	김대경

결 혼

△이근복군(이남호 집사 여육기 권사 아들)과 신미경양(신문철씨 이승자 권사 딸) 8월 21일 오후 1시 △윤요한 군(윤금숙 권찰 아들)과 신현미양(개포구역) 8월 24일 오후 2시 △노영근군(노현근씨 석은자 집사 아들)과 이현숙양(이정우 집사 동생 찬양대원) 8월 24일 오후 3시. △정진은군(김복희 권사 아들)과 박애선양 8월 31일 오후 2시 △박태성군(역삼구역)과 김명숙양(김종삼씨 이순애씨 딸) 8월 31일 오후 1시 △김영기군(김점식 집사 안태례 권사 아들)과 유명신양 9월 7일 오후 2시 △박경호군(역곡구역 강옥자 집사 아들) 9월 7일 오후 1시 △김효열군(용산구역 송선월씨 아들)과 이정옥양 9월 14일 12시 30분 △이종배군(이조영집사 아들)과 김미경양 9월 21일 오후 2시 △한철희군과 최미희양(김영희 권사 딸) 9월 23일 오후 2시 △신용기군과 이숙규양(이인섭씨 딸 제 4부 찬양대원) 10월 1일 오후 1시 △전광훈군(전희경 집사 조영녀 권사 아들)과 김상미양 10월 3일 오전 11시 △양국석군(양재영씨 서옥재집사 아들)과 이선희양 10월 3일 12시 △김중수군과 양태성양(초등부 교사) 10월 3일 오후 1시 △홍성준군과 고미정양(한남 1 구역 고성수씨 딸) 10월 3일 12시 △최용식군과 서정란양 10월 5일 오후 2시 △윤석산군(유정희 권사 아들)과 홍지향양(광명구역) 10월 9일 오전 11시 △임병준군(황규선 권사 아들)과 이신영양 10월 9일 오후 1시 △강 욱군(강북연씨 박종민집사 아들)과 박은미양(발산 구역) 10월 10일 오후 △안국군(김분식 권찰 아들)과 박경희양 10월 19일 오후 2시 30분.

별 세

△김승일씨(신정구역) 8월 12일 별세 △황용현씨(응암구역) 8월 20일 별세 △홍양식씨(암사 3 구역) 8월 21일 별세. △홍익규씨(역삼 2 구역) 8월 23일 별세 △박홍열씨(오류구역) 9월 2일 별세 △정미택씨(길음구역 천숙영씨 모친) 8월 31일 별세. △심인경 집사(이외복 권사 부군) 9월 9일 별세 △유의순씨(봉천구역 허성국 집사 모친) 9월 15일 별세 △강대빈씨(고척구역) 9월 16일 별세 △이봉섭집사(양재 구역) 9월 17일 별세. △김덕환씨(면목구역 유치부 김영자선생 부친) 9월 24일 별세. △김갑준씨(갈현구역) 9월 24일 별세. △박연숙 권찰(봉천 6 구역) 10월 2일 별세 △박성범씨(목동 2 구역) 10월 7일 별세.

처음나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신자부는

- 처음 믿으시는 분(이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원하시는 분)을 위하여 아주 유익하고도 꼭 필요한 기본적인 구원의 도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 부득이한 시간 사정으로 새신자부에 참석치 못하는 분은 통신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교육시간은 매주일 3부(10시30분) 예배후(11시50분)에 본당 103호실에서 6개월 간격으로 공부합니다.
- 이 교육과정을 마치신 분은 학습을 받게 됩니다.
- 저희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정성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그럼 주일에 새 신자부에서 만나 뵙게 될 것을 바랍니다.

총현교회 새신자부



☆ 귀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월간충현」을 장병들이 읽고 신앙이 날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내부반에서 또는 훈련장에서 「월간충현」을 읽는 것을 볼때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시지요.
(전격교회 최부수목사)

☆ 월간충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어 목회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큰빛교회 이재승목사)

☆ 하나님의 은혜가 월간충현 위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개척교회에서 유익하게 읽고 있습니다.

(양평제2교회 윤일화목사)

☆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7. 8월호 월간충현을 이번에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김 창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언제나 불초 이 종의 영혼의 큰 양식이 되오며 그외에도 생동하는 은혜의 내용들이 월간충현, 바로 그속에 가득히 담겨져 있어서 이 시골 벽지에 위치한 지회 교회에서는 이번달 같이 두 달이 한꺼번에 (7, 8월호로 한테 묶음) 묶어 나오는 것이 아쉬울 정도입니다.

다. 귀 교회 재정과 여러 여건이 좋아지면 매월 한권씩 편집되어서 보고 읽고 싶은 심정이옵니다.

언제나 성은중에 귀교회의 부흥발전과 또 귀 월간충현의 편집위원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에 평화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 받으시기 기원합니다.

(시온교회 이경훈전도사)

☆ 귀 교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충현을 통해 목회에 많은 도움을 받게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삼호교회 김용정목사)

☆ 월간충현지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곳은 최일선 군인가족들이 회집되는 개척교회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은성교회 조용호목사)

☆ 어느날 우연히 월간충현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보았는데, 자주 반복하여 읽다보니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보내 주십시오.

(○○부대 상병 김충현)

☆ 귀 교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충현을 3부씩 매월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백이교회 박형규목사)

☆ 지난 9월 2일 귀 교회를 탐방했던 목포제일교회 장로입니다.

여러가지 은혜를 받고 감명 하였으며 귀 교회의 성전신축이 하루빨리 준공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뢰을 말씀은 귀 교회서 발행하는 월간충현을 탐독코저 하오니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목포제일교회 김만길장로)

☆ 이곳 어촌마을 조그마한 교회에서 오늘도 어민들과 함께 소망을 갖고 목회하고 있는 김태복입니다.

계속 월간충현을 보내 주십시오.
(진동에서 김태복)

☆ 월간충현을 받아보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끊어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호부터 꼭 보내주십시오.
(부산 박창도전도사)

☆벽지에서 교역을 하다보니 월간충현이 계속 기다려 집니다.

계속 보내주십시오.
(해남 김정배)

☆월간충현을 보내 주신다면 농촌 복음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리교회 김일배전도사)

☆ 오랫동안 월간충현이 왔습니다. 내용을 읽으니 충현교회를 한 눈으로 보는듯 합니다. 매월 받아보기를 희망합니다.

(금흥침례교회 최원규목사)

☆ 귀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월간충현이 목회자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속보내 주십시오.
(김원웅목사)

☆ 귀 교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충현이 농촌 목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남 대서교회 조준하목사)

☆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입니다. 2 달전에 개척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경공부와 설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 교회에서 발행되는 월간충현을 보내 주십시오.

(충남 대광교회 정광성목사)

☆ 농촌의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한 저로서는 목회정보가 빈약합니다.

귀 교회에서 발간하는 월간충현을 보내 주십시오.

(경기 이천 상용교회 이상연전도사)

12 월 의 행 사

- ☐ 당회
 - 1 일 / 권찰임명
 - 8 일 / 교사임명
 - 15일 / 성가대 임명
- ☐ 제직회
 - 1 일 / 정기제직회
- ☐ 기획조정실
 - 8 일 / 월간충현 발행(11·12월호)
- ☐ 구역권찰회
 - 6일/구역 분할 배정
- 27일 / 권찰회 총회
- ☐ 북한선교위원회
 - 15일 / 농어촌 부흥집회
 - 30일 / 송구영신 성회
- ☐ 교육위원회
 - 24일 / 직장부 진도집회
 - 26일 / 교사총회
- ☐ 재정위원회
 - 29일 / 예산, 결산 특별제직회 상정

편 집 후 기

☆85년도 지물이 산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못다한 일들을 성리하여 새해에 새롭게 시도하는 기회를 삼도록 노력해야겠다.

☆ 단군절 건립에 대하여 전국교회가 성토와 직극반대로 나시고 있고, 성명서 발표, 건립반대 집회 등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단군 국조 숭배 풍조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기독교 신앙의 저해 행위인 동시에 십계명 위반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절 건립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 교회당 건축으로 인한 건축재정에 힘입는 뜻에서 「월간 충현」도 격월로 발행케 되었으나, 편집실의 이리가지 사정으로 인해 9·10월호는 휴간하고 11·12월호로 85년도 마지막호로 상식코지 한다.

매월 기다리는 독자들의 빔발같은 성화에 보답해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내년(86년)엔 더욱 잘 발행될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한다.

그동안 투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편집위원 재위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

☆ 기쁜 성탄과 즐거운 새해를 맞기를 기원하면서 편집후기에 대신한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 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월간 충현

1985년 11·12월호

제13권 제7호(통권 제131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5년 11월 29일 인쇄
1985년 12월 5일 발행

발행인 / 김창인
편집인 / 최석주
주간 / 이성근
홍보출판부장 / 김광신
편집위원 / 조현명
조영길
조선근
손경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562-4181~5

사진으로 보는 충현의 이모저모



▲ 85년도 마지막 성례 및 성찬식



▲ 고3 을 위한 기도회



▲ 86년 임직후보자 수료예배



▲ 교사 단기 수련회



▲ 전도위원회 주최 전도팀 위로간담회



▲ 케냐 선교사에게 보내는 구호품.